출연(연) 신임원장 **출사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 구축"

이상천 한국기계연구원장

기계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연구원들과 조직의 역량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고 있었으며, 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산업계의 요구사항 또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기계연구원이 산학연을 선도하는 기계분야 중심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해 3C의 슬로건을 이야기했습니다. 3C는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신감 고취의 'Confidence',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Collaboration', 연구윤리 강화와 투명한 기관운영의 'Clean'의 이니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발맞추어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구축과 해외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연구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열린 경영과 투명경영,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구축, 윤리경영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향후 10년 후의 발전 청사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대내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 ·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인 'KIMM 2015'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반영한 'KIMM 2020'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년 후 '세계 일류기술과 창의적 미래기술에 도전하는 기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산업원천기술 2~3개 보유, 장기성장 모멘텀 확보 및 기계분야 산학연을 선도하는 R&D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비전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는 고객중심의 연구개발 수행과 완성도 높은 기술수준 확보,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전문인력의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일반기계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2001년부터 흑자기조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브릭스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기계의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미해결 과제로 지난 1985년에 21억 달러 적자에서 2007년에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08년 8월 현재 46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기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를 확보하고, 대일 무역수지 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첨단 고부가가치 기계류 · 부품을 대상으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각한 기계류 · 부품을 대상으로 정부 · 산업계와 협력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계류 · 부품의 핵심인 신뢰성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품 중심에서 장비 · 설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공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최근 주변상황은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규모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은 그 동안 PBS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건비를 따내는 것에 집중해 소형 단기 과제에만 매달려 왔는데 대형 과제를 수행해야 출연연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자신의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결과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책임경영제' 도입, 직원 업무자율성 보장"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KISTI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R&D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나아갈 곳을 인도하는 길잡이별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효율, 책임, 자율' 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KISTI를 경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 사업단 별로 사업단장에게 권한을 일임하고 대신 책임도 지도록 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매니저가 준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대신, 스스로 목표치를 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과 자율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사업단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력 배치도 훨씬 탄력적으로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기관 전체의 효율성이 강화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구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ISTI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 포털, 정보분석, 국가 사이버 R&D 인프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개별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가속도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미래에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정확히 선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오랜 침체기를 겪으면서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출연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더구나 세계 과학기술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연연도 기존의 업무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융복합화, 거대화하고 있는 R&D 패러다임에 발맞춰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며, 사회경제적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 고객만족의 철학 실천"

이무하 한국식품연구원장

20년 전에 떠났던 친정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이제 농수산업과 식품과학이 생명공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국가와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시기가 되었음을 볼 때 금석지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식품 연구를 총괄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짐과 동시에 도전의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고객 지향적으로 연구원을 경영할 것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고객은 식품산업, 농수산업, 공공기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고객만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때에는 고객에 대한 봉사도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대경영에서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면서 그들이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직원만족 · 고객만족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고객인 지식경제부의 관점에서는 식품산업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점에서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극대화와 지자체의 지역특산물 산업화에 연구개발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기반 기술개발에도 주력하여 안전성 검증기술, 품질 인증기술,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분석기술개발도 수행할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하려면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이 수월성을 가져야 하므로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신규 연구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은 생존을 위해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증진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므로 국민들에게 건강한 소비기술을 제공하여 국가 의료비 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측면에서 건강한 국가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식생활 측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에 우리의 미래를 두고자 합니다. ST